2026
02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유럽 주요 국가의 ECEC 정책 동향

김은설,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럽 주요 국가의 ECEC 정책 동향[1)]

1 ECEC 체제[2)]

가.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일 체제와 이원화 체제

▶ 이원적(separate) ECEC 서비스 체제

- 분리된 체제는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 형태(childcare-type) 기관과 3세 이상 교육 유형(education-type) 기관으로 나누어짐.
- 유럽의 많은 국가는 연령에 따라 분리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벨기에,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 등이 이러한 형태임.
- 분리된 체제 중 영아 중심의 0-2세 시기는 형식적 교육이라기보다는 보육이 중심이며, 유아 대상 시기는 취학 전 교육(ISCED 02)으로 분류되어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음.

▶ 일원화된(unitary) ECEC 서비스 체제

- 통합된 체제는 0-5세 영유아기 전체 연령에게 교육과 보육의 형태가 일원화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에 따라서 5세부터 취학 전 학급을 운영하기도 함.
- 유럽 국가의 1/3에서는 기관 중심의 ECEC가 통합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노르딕 국가(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서부 발칸 국가 중 일부(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이원적 형태와 일원화된 ECEC 기관이 혼합된 체제

- 분리된 체제와 통합된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들은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있음.

▶ 거버넌스 분리(split)형 체제와 통합(integrated)형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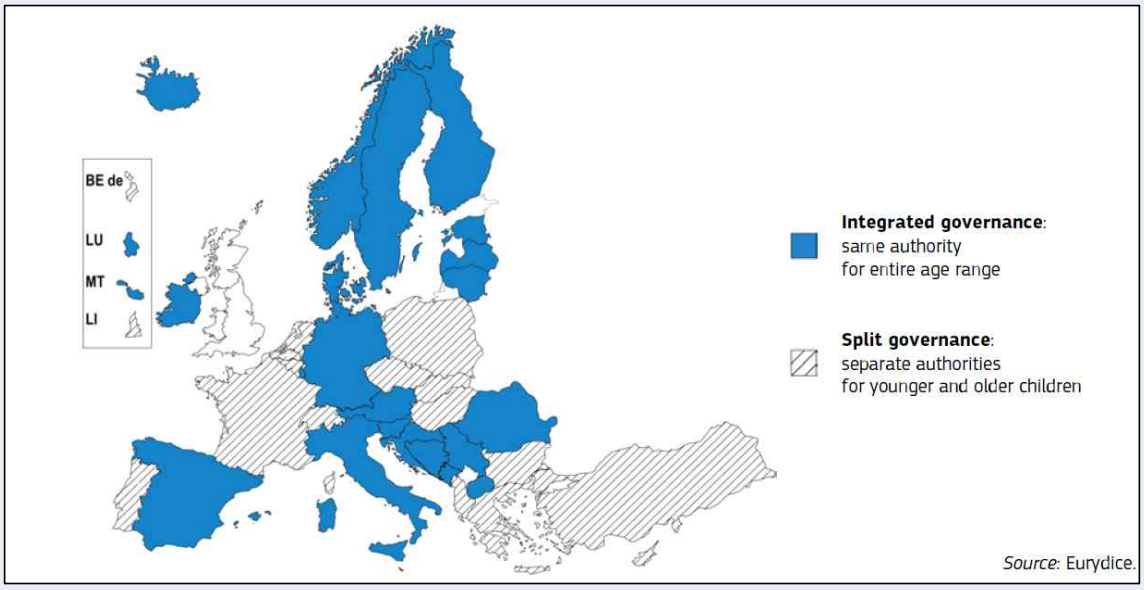
- 하나의 주관부처(대부분 교육부)가 ECEC 전체를 담당하는 통합형 거버넌스 체제에는 서비스 기관 형태가 일원화된 모든 국가와 혼합형 체제 내 대부분의 국가가 속함. 서비스 기관 형태가 분리형 체제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도 거버넌스는 교육부 일원화 체제로 통합됨.
- 거너번스 분리형 체제(split system)는 연령별로 적합한 환경 제공, 특정 연령에 맞춘 교육·보육과정 운영,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 실시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벨기에, 그리스, 프랑스, 헝가리, 스위스 등이 분리형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거버너스 통합형 체제(integration system)는 ECEC

1) 본 글의 내용은 2025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로 수행된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Ⅲ)(김은설, 김지원, 송신영, 장혜진, 김희수, 2025)' 연구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2) 해당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EACEA, & Eurydice. (2025).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25: Eurydice report, https://eurydice.eacea.ec.europa.eu/publications/key-data-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europe-2025 (2026. 4. 5. 인출)와 OECD. (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ducation-at-a-glance-2025_1c0d9c79-en.html (2026. 4. 8. 인출)을 바탕으로 작성됨.

전 단계를 단일 부처가 관장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촉진하고, 더 나은 서비스 질 보장이 용이하며, 원활한 행정적 소통, 연령 혼합 상호작용, 초등학교 입학 전 구조적 전환이 없는 안정성 등이 장점으로, 출생 시부터 영유아를 학습자로 보는 관점에서 보호(minding)보다 교육(education)에 무게를 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속함.

그림 1 유럽 내 ECEC 거버넌스의 분리형 및 통합형 체제 국가 분포



자료: European Commission, EACEA, & Eurydice. (2025).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25. Eurydice report, p.39. https://eurydice.eacea.ec.europa.eu/publications/key-data-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europe-2025 (2026. 4. 5. 인출)

나. 유아 의무교육

- ECEC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일부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지난 10년간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음.
- 의무교육 연령 하향 국가
  - 최근 헝가리는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기존 6세에서 4세로 2년 하향하였으며, 그 외 OECD 및 협력국에서 1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짐.
  - 벨기에는 대도시에서 저학력 부모를 둔 이주민 영유아의 정규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에 만 1년의 취학 전 교육을 포함시킴.
  - 프랑스는 2019/2020 학년도부터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3-5세의 모든 유아가 보다 일찍부터 교육 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취학 전 교육에서의 기초 학습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리투아니아 또한 취약 계층 맞춤형 접근을 채택하여, 사회·경제적 위험 가구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취학 전 교육을 의무화함.
  - 5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초등학교 내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가 2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는 놀이 중심의 유아학급에서 정규 학교 교육으로 전이하는 역할을 함.

표 1 의무교육 연령 하향 국가

국가	의무교육 연령과 형태
영국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무교육 (초등 2년간 기초단계 과정)
벨기에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
헝가리	4세 유아교육부터 의무교육 시작
프랑스	3-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
리투아니아	사회경제 위험 지구 거주자 대상 5세 미만 취학전 교육 의무화

2 ECEC 비용 지원[3)]

- ECEC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완화(affordability)는 가능한 한 많은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건이므로, 최근 다수 국가에서 무상 혹은 일부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임.
- 국가별 비용 지원 현황
  - 룩셈부르크에서는 1세-4세 영유아에게 주당 20시간의 무상 ECEC가 제공되며,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함.
  - 리투아니아에서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영유아가 주당 20시간의 무상 서비스를 받으며, 추가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루마니아는 출생 시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전일제(10시간)와 단시간제(5시간) 프로그램 모두 무상으로 제공함.
  - 불가리아는 2022년부터 3세 이상의 모든 영유아에게 ECEC를 무상 제공함.
  - 덴마크에서는 6세 이전까지 ECEC 서비스 부모의 부담금은 기관의 예상 총 운영비의 최대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
  - 아이슬란드에서는 부모 부담금 수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서비스 총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부모가 전체 비용의 10-20%를 부담함.
  - 핀란드는 2024년 8월부터 월 최대 부담금을 최대 311유로(약 45만원)로 제한했으며,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은 부담금이 전혀 없음. 소득에 따라 전일제 기준 0-311유로까지 책정됨.
  - 스웨덴에서는 1-6세 영유아의 ECEC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되며, 부모는 소득에 따라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되, 자녀수에 따라 추가 상한이 적용됨.
  - 프랑스에서는 2-3세를 위한 공립 유아학교가 거의 무상이며, 3세 이상 의무교육 또한 무상 제공임. 3세 미만 보육서비스는 총 보육비의 최소 15%를 가정이 부담함. (European Commission, 2025a).
  - 노르웨이에서는 유치원 학비가 가구 소득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3) 해당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EACEA, & Eurydice. (2025).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25: Eurydice report, https://eurydice.eacea.ec.europa.eu/publications/key-data-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europe-2025 (2026. 4. 5. 인출)와 OECD. (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ducation-at-a-glance-2025_1c0d9c79-en.html (2026. 4. 8. 인출)을 바탕으로 작성됨.

표 2 국가별 ECEC 비용 지원 현황

국가	비용 지원 방식
룩셈부르크	1-4세 주 20시간 ECEC 무상
덴마크	1-5세 부모 부담금 기관 운영비의 최대 25% 상한
아이슬란드	부모 부담금 총 보육비의 10-20%
핀란드	소득에 따라 0-311유로 부모 부담. 이용자의 과반수 무상
스웨덴	1-6세 ECEC 비용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 소득에 따라 부모 소액 부담
프랑스	2-3세 공립유아학교 거의 무상. 3세 이상 ECEC 무상 의무교육
노르웨이	ECEC 비용 가구 소득의 최대 6%까지 부담
리투아니아	0-5세 주당 20시간 ECEC 무상. 추가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 부담
루마니아	0-5세 전일제(10시간) 및 단시간제(5시간) 무상
불가리아	3세 이상 모든 영유아 ECEC 무상

③ ECEC 커리큘럼[4)]

- 유럽 내 국가의 약 75%가 영유아 교육·보육 전체 연령대를 포괄하는 교육 지침(educational guideline)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연령별로 구조화되어 영유아가 초기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시점부터 초등학교로 전이까지의 연계를 보장함(European Commission, EACEA, & Eurydice, 2025: 114).
- 나머지 25% 국가에서는 교육 지침이 3세 이상 유아에만 적용되고 3세 미만 영아에게는 국가 수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며 주로 분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국가의 경우에 해당함(European Commission, EACEA, & Eurydice, 2025: 114).
- 국가별 교육·보육 과정의 특징
  - 영유아의 고유성, 주체성을 존중하며 영유아의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영유아 중심 교육과정체제를 가진 국가는 다음의 〈표 3〉과 같음.

4) 해당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2025b).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6. 4. 8. 인출),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www.oph.fi/sites/default/files/documents/National%20core%20curriculum%20for%20ECEC%202022.pdf (2026. 4. 2.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6). Educational guidelines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educational-guidelines (2026. 4. 5. 인출),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doi.org/10.1787/f47a06ae-en (2025. 8. 5. 인출)을 바탕으로 작성됨.

표 3 영유아 중심 접근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영유아 중심 접근
아일랜드	– 학습과 발달에 대한 전인적 관점을 강조하며, 영유아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영유아의 견해를 반영한다. – 영유아 주도 학습과 성인 주도 학습 간의 균형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상호작용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호주[1)]	– 교직원과 영유아가 지식 발달에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영유아와 교직원 간의 협력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을 장려하며, 영유아가 주도하는 학습과 교직원이 지원하는 학습 간의 균형을 촉진한다.
슬로베니아	–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의 원칙을 강조한다. –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획된 지도와 비계획적 지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개입을 함께 지원한다.

주: 1) 유럽국가에 속하지 않으나 유사한 정책 방향성을 가진 국가이므로, 참고적으로 본 표에 포함함.
자료: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59, https://doi.org/10.1787/f47a06ae-en (2026. 4. 11. 인출)

• 영유아의 타고난 호기심을 발현할 수 있도록 놀이와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놀이 중심 접근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로 다음 〈표 4〉와 같이 구분이 가능함.

표 4 국가별 교육과정에서의 놀이 중심 접근

국가	교육과정에서 놀이 중심 접근
프랑스	교육과정 서문에서 놀이를 통한 학습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유아교육의 일반적 목표 중 하나로, 영유아가 놀이·경험·탐구를 통해 삶과 학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학습을 놀이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사 주도 놀이(지도된 놀이)와 자유놀이 모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
캐나다[1)]	모든 주(州)의 교육과정은 놀이를 영유아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놀이 유형(독립놀이, 병행놀이, 사회적 놀이)을 포함한다.

주: 1) 유럽국가에 속하지 않으나 유사한 정책 방향성을 가진 국가이므로, 참고적으로 본 표에 포함함.
자료: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61, https://doi.org/10.1787/f47a06ae-en (2026. 4. 11. 인출)

특징적인 교육·보육 과정을 가진 국가 사례 1: 핀란드

• 핀란드 영유아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ECEC 국가 핵심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과 『취학 직전 교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공립, 사립, 가정보육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 ECEC 서비스에 적용됨(European Commission, 2025a).

• ECEC 국가 핵심 교육과정

– 2022년에 개정된 『ECEC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데 (1) 사고하기와 학습하기, (2) 문화적 역량, 상호작용 및 자기표현, (3) 자신 돌보기와 일상 관리하기, (4)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 (5) 디지털 역량, (6) 참여와 함께하기임.

–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영역(Learning areas)은 5개 영역으로 (1) 언어가 풍부한 세상, (2) 다양한 표현 형태, (3) 나와 우리 지역사회, (4) 환경 탐색과 상호작용, (5)

성장하고, 움직이고, 발달하는 나로 구성되어 있음 (Hautakangas & Kaplin-Sainio, 2023: 23).

- 취학 직전 교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

- 『취학 직전 교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취학 전 학급(pre-primary class)이 동등한 양질의 취학 전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기본교육법에서 정한 취학 전 교육의 목적은 유아가 인간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영유아가 학습자로서 학습 역량을 향상하도록 도모함.

▶ 특징적인 교육·보육 과정을 가진 국가 사례 2: 프랑스

- 교육·보육과정은 3세 미만과 3세 이상으로 구분됨.

-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보육시설마다 자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학습 및 발달 영역에 대한 국가 수준의 공통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국가 프레임워크」에 의해 0-3세 영유아 보육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나 활동 구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 각 보육기관은 자체적인 교육·보육 계획(pedagogical project)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지방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칙적으로,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기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 기준(공중보건법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방법과 이에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평가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3세 이상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과정은 프랑스 교육법(Code of Education)이 각 교육 단계(cycle)별로 영유아가 습득해야 할 지식과 교수 방법을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programmes)'가 취학 전 교육 과정을 마련함.

- 현재 유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3-5세 교육과정은 2020년 제정된 바, 구체적인 교수방법은 (1) 놀이를 통해 배우기(learning by playing), (2)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기(learning by thinking and solving problems), (3) 실천하면서 배우기(learning by practicing), (4) 기억하고 암기를 통해 배우기(learning by remembering and memorizing)이며 국가 수준의 교과서나 자료는 정해져 있지 않음.

- 3-5세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1) 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2) 신체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 이해하기, (3) 예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 이해하기, (4) 생각을 구조화하는 첫 도구 익히기, (5) 세상을 탐색하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과 영역에서 벗어나 교과를 가로지르는 능력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음.

- 취학 전 교육에서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 유아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데, 첫째는, 교육과정 이행 동안 지속적으로 작성된 학습 이력 노트(learning follow-up notebook)로, 이는 연령에 따라 작성 빈도가 다르고, 내용은 취학 전 과정을 마친 후의 유아가 성취한 학습 내용을 보여 주어, 기관을 전이할 때 유아의 이력을 이어주는 자료로 활용됨.

- 두 번째는, 학습 성취 요약표(summary of achievements)의 활용으로, 취학 전 교육의 마지막 해에 작성되며 유아가 초등학교로 원활히 전이하도록 돕는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이며, 교사가 전국 공통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함. 5개 학습 영역 각각에 대해 교사는 유아의 성취 수준을 세 가지 수준인 '아직 성공하지 못함(fails to succeed yet), 성공을 향해 나아감(is on the way to success), 자주 성공함(often succeeds)' 중 하나로 표시하게 됨.

4 교직원의 전문성[5)]

- 교직원은 ECEC 체계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주체이며, 영유아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형성함으로써 영유아의 학습, 발달,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직원의 자격 기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국가별 교직원 자격 기준

  - OECD(2021)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자격 요건은 ISCED 5단계에서 ISCED 7단계 사이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ISCED 6단계)이 가장 일반적인 교사 자격 요건으로 확인됨.

  -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은 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ISCED 7단계) 을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을 설정한 국가들이며.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체코는 예외적으로 ISCED 3단계를 요구함.

  - 취학 전 교육(ISCED 02)을 위해 ISCED 6 수준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교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터키, 독일, 칠레, 노르웨이와 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순으로 나타남.

  - 보조교사(assistant) 자격 요건은 국가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ISCED 3단계(상위중등교육)이며, 여러 국가(칠레,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음.

  - 교직원의 영유아 관련 전문 훈련 여부는 학력 수준과는 구분되는 요소로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터키에서는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교직원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영유아 관련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단순히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영유아와 함께 일하기 위한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학력과 전문 훈련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ECEC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음.

  - ECEC 영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일반적인 자격 조건을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국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음.

- ECEC 교직원 자격 체계의 사례 1: 핀란드

  - 핀란드 ECEC 인력은 크게 영유아 ECEC 교사와 가정보육 인력으로 구분됨(European commission, 2024e).

  - 영유아 ECEC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3년의 대학 교육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사학위(Bachelor's degree)가 필요하며, 졸업생 대부분은 7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교육기관(ECEC centres)에서 교사로 근무함.

  - 영유아 교사 양성의 교육과정은 언어 및 의사소통 과목, 기초 교육학 및 전공 교육학, 영유아교육 및 취학 전 교육에 필요한 직무 역량 과목, 부전공 과목, 선택 과목, 교육 실습이 포함되며,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기관 및 취학 직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환경에서 실습이 이루어짐.

  - 교사 외 다른 종류의 자격인 보육사(childcarers)는 고등직업교육 수준(ISCED 3, 한국 고등학교 수준)의 자격이 필요하며 보건·사회복지 또는 교육·지도 분야의 직업 자격증이 요구됨(European

5) 해당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2024c). Initial education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initial-education-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 (2025. 8. 5.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4a).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6. 4. 10.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3). Teachers and education staff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teachers-and-education-staff (2026. 4. 8. 인출),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doi.org/10.1787/f47a06ae-en (2026. 4. 11. 인출)을 바탕으로 작성됨.

commission, 2024d).

- 가정 보육 인력은 일반적으로 가정 보육사 직업 자격(ISCED 3 수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3명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최소 1명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자격을 갖춘 보육사(childcarers)이어야 함. 한 명의 가정 보육 제공자(childminder)는 영유아(7세 미만) 최대 4명(자신의 자녀 포함)을 전일제로 돌볼 수 있으며, 취학 전 또는 취학 영유아 1명을 반일제(half-day)로 추가 돌볼 수 있음. 2명 또는 3명의 보육 제공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성인 3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최대 12명의 영유아까지 보육할 수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4b).
-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는 교직원의 최소 1/3 이상이 유아교육 교사(ECEC teachers)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2/3는 ISCED 3 수준의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사(childcarers)일 수 있으나, 2018년 제정된 영유아교육·보육법은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2030년까지 최소 2/3의 교직원이 ISCED 6 수준의 자격을 보유할 것, 그 중 절반 이상은 정식 ECEC 교사이어야 할 것을 명시함(European commission, 2024d).

표 5 국가별 유아 교육기관 교사 및 보조인력의 자격 수준

국가	교사	보조인력
벨기에	ISCED 6	ISCED 3
칠레	ISCED 6	ISCED 6, 직업교육
체코	ISCED 3	
덴마크	ISCED 6	
에스토니아	ISCED 6	
핀란드	ISCED 6/7	
프랑스	ISCED 7	ISCED 3, 직업교육
독일	ISCED 6, 직업 교육	ISCED 3, 직업교육
아일랜드	ISCED 5	ISCED 4
이스라엘	ISCED 5	ISCED 3
일본	ISCED 5/6	
룩셈부르크	ISCED 5/6	
멕시코	ISCED 6	ISCED 2와 연수
뉴질랜드	ISCED 6	
노르웨이	ISCED 6	ISCED 3
폴란드	ISCED 7	
포르투갈	ISCED 7	
슬로바키아 공화국	ISCED 3	
슬로베니아	ISCED 6	ISCED 3, 직업교육
스위스	ISCED 6	

주: 자료는 보육(daycare) 및 ECEC 통합기관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f47a06ae-en. pp.101-102의 표를 번역함. (2026. 4. 11. 인출)

▶ ECEC 교직원 자격 체계의 사례 2: 프랑스

- 프랑스의 ECEC 인력은 3세 미만과 3세 이상으로 나누어짐.
- 보건부 관할인 3세 미만 영아 담당 보육실무자(practitioners)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경우, 최소 학력 수준은 ISCED 3단계(고등학교 수준)이며 인력 중 최소 40%는 다음과 같은 국가공인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주인증심리운동치료사(psychomotrician), 주인증영아교육사(educator of young children), 주인증간호사(state-qualified nurse), 주인증보육간호사(state-qualified nursery nurse).
- 3세 이상 유아 담당 교원은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며, 총 32개의 2년제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직 관련 이론과 실습을 이수한 후 석사과정인 교원 양성과정(Métiers de l'enseignement,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MEEF)을 수료해야 하고 경쟁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경쟁시험 합격자는 석사 2년차에 절반은 실습, 절반은 수업에 참여하며 '예비공무원(student civil servants on probation)'이 됨. 2021년 교사 준비과정(Parcours Préparatoire au Professorat des Écoles, PPPE)를 도입하여 학사과정(3년)을 통해 교직을 조기에 준비하는 새로운 트랙을 제공하고 있음.
- 2019-2020년 기준 프랑스 사립학교 재학생의 96%가 국가 보조 사립학교(government-dependent private schools)에 재학 중임. 해당 학교에 채용된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서비스 종사자이므로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공립 교사와 동일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이에 한 해 교직 자격을 부여받음.
- 유아 및 초등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24시간이며 2019년 제정된 학교법(École de la confiance)에 따라 모든 교사에게 직무연수가 의무임.

5 우리나라 ECEC 정책에 주는 시사점

▶ 앞서와 같이 유럽 국가들의 ECEC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ECEC가 비용지원, 접근성, 교육과정, 교직원의 교육 등 어떤 측면에서도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지만,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짚어봄으로써 찾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함.

▶ 통합적 거버넌스 하 이원적 ECEC 서비스의 가능성

-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2024년 6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함으로써 0-5세 전체 ECEC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영아기와 유아기, 초등 교육까지의 연계성 또한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맞이함.
- 중앙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거버넌스가 통합되었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으로 여전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ECEC 서비스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보 기관으로 구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유럽 국가의 ECEC 체제의 상황을 보면 여러 장점을 위해 거버넌스 통합은 하였으면서도 서비스 기관은 하나로 일원화하지 않고 보육과 교육 제공 기관으로 구분되게 운영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예.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유·보 기관 간 유형 통합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통합과는 별도로 서비스 형태의 이원화가 가능한 구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이 가진 각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비용 지원이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사 교육 등 격차가 있는 부분은 조율하여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대상 연령은 유치원은 유아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설립유형에 따라 기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관의 일원화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기관 이원화 체제에서는 일과구성이나 프로그램 또한 보육 또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주된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수요자가 요구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되며, 그런 반면 두 유형의 기관이 모두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균형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의무교육 연령의 하향과 취학 전 학급(pre-primary class)의 필요성

-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의무교육 연령을 5세로 하향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4세 또는 3세까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현재 6세 초등학교 이후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아기 의무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를 해볼 만함.
- 의무교육 연령 하향화를 통해 영유아의 ECEC 참여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과 웰빙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반면, 의무교육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특성을 잃거나 획일화된 학교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취학 전 1년간 국가가 질을 보장하는 취학 전 학급에 다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교육으로의 전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무상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취학 전 학급 1년의 의무교육을 통해 유아에 대한 외국어 사교육의 횡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실습 강화

- 유럽 국가들이 현장 중심의 영유아교사 양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가운데 특히 핀란드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면, 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습기간을 늘리고 실습의 환경도 다양화해 감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영유아교사가 실습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실습기간이 짧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국가의 실습의 범위와 기간, 내용, 피드백과 활용 등에 대해 고찰하고 교사의 현장 역량을 높일 있는 적절한 수준의 실습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사 자격 체계의 다양화와 처우 개선

- 유럽 국가들에서는 교사(teachers)와 보조교사(assistants) 자격을 별도로 두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여 가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 교사와는 다른 자격을 가진, 쉽게 채용이 가능한 보조교사를 투입함으로써 교사(보조교사 포함) 대 아동 수 축소는 강화하고 실제 정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차등적으로 높임으로써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유럽 국가들과 같이 1학급 당 아동 수는 늘리고 교사 대 아동 수는 줄이는 방향 또한 고려해 볼 만한데, 다시 말해 다수 아동이 있는 한 학급에 복수의 교사가 투입되는 구조를 의미하며, 이 때 교사는 학위를 가진 정교사 외에 ISCED 3단계 수준 이상의 보조교사까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면, 현재 3세반이 1:15 기준이나 이를 학급당 20명으로 늘리고 교사와 보조교사를 각 1명씩 투입하여 결과적으로 1:10으로 비율을 강화하는 것임.

참고문헌

- 김은설·김지원·송신영·장혜진·김희수(2025).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Ⅲ). 육아정책연구소.
- European Commission. (2023). Teachers and education staff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

ypedia/france/teachers-and-education-staff (2026. 4. 8.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4a).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6. 4. 10.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4b). Home-based provision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home-based-provision (2026. 4. 13.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4c). Initial education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initial-education-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 (2026. 4. 10.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4d). Organisation of centre-based ECEC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organisation-centre-based-ecec (2026. 4. 14.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4e). Teachers and education staff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teachers-and-education-staff (2026. 4. 9.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5a). Access (France). Eurypedia.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access (2026. 4. 6.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5b).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nland).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inland/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6. 4. 8.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6). Educational guidelines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educational-guidelines (2026. 4. 5. 인출)
- European Commission, EACEA, & Eurydice. (2025).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25: Eurydice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ydice.eacea.ec.europa.eu/publications/key-data-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europe-2025 (2026. 4. 5. 인출)
- Hautakangas, M., & Kaplin-Sainio, K. (2023). The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CEC.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https://www.oph.fi/sites/default/files/documents/The%20National%20Core%20Curriculum%20for%20ECEC%20webinar%20material%20%28230301%20%26%20230307%29.pdf (2026. 4. 7. 인출)
- OECD. (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f47a06ae-en (2026. 4. 11. 인출)
- OECD. (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ducation-at-a-glance-2025_1c0d9c79-en.html (2026. 4. 8. 인출)
-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www.oph.fi/sites/default/files/documents/National%20core%20curriculum%20for%20ECEC%202022.pdf (2026. 4. 2. 인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skim@kicce.re.kr
장혜진 대구대학교 교수 hkim@kicce.re.kr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 www.kicce.re.kr